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1 이웃돕기 바자 - 사랑의 섬김

19일 수요일 I 부예배후 개장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도를 몸소 실천하여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병중에 있는 이들을 찾는 2001 이웃돕기 바자가 19일 개장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준비위원회는 판매물품 접수를 시작하였고 각 교구에서는 교구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물품은 푸짐한 먹거리와 한가위를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의 좋은 선물용품, 국산 및 수입 가전제품, 캐주얼 및 기성복, 그리고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한 고추(1천근)와 액젓 등이 싼 가격에 나와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여 가게에 도움이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한편 준비위원회에서는 성도들 중 기증할 물품이 있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기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많은 손님을 초청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86회 총회 열린다

9월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측) 86회 총회가 9월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열린다.

‘성령이여 교토케 하소서’(고후 13:13)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

회에 60개 노회 총대들이 모여 교회 안팎의 문제들을 의제로 다루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윤 목사, 김기태 장로, 민순구 장로가 서울 강남노회 총대로 참여한다.

목회자 세미나 현장스케치



① 본당 로비를 가득 메우다

② 교재를 둘러보면서...

③ 오늘도 접수되나요? - 접수하기에 분주한 참석자



성경암송대회 예선 10월28일(주)개최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성숙을 이루고 갈급한 영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성경암송대회가 오는 10월28일(주) 각 교회 학교 별로 진행된다.

우리 교회의 성경암송대회는 10년간 전 교회학교가 모두 참석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성경 암송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복된 자리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여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마음껏 소리치며 외우는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올해 성경암송대회의 범위는 신약성경 요한일서 1~5장 전장이다.

본선은 11월4일(주)에 개최된다.

2001 사명자 대회 열린다

10월7일부터 50일간

우리 교회 설립당시 50일간 기도회를 갖고 교회 간판을 걸고 출발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해마다 기도와 전도운동을 펴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자 대회가 10월 7일 부터 시작된다.

‘임하소서 성령이여!’를 주제로 열리는 사명자 대회를 통해 다락방배가 운동, 잃은 양 찾기, 70인 전도단과 축호전도, 특별 새벽기도회 등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교회발전과 부흥을 위한 기도회

교회발전과 부흥을 위해 당회장 이종윤 목사 and 장로들은 지난 13일 1박2일간의 산상기도회를 가졌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힘은 오직 기도뿐임을 확인하며 온 교회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이번주 말씀

이와 같이 너의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개역개정판 눅 14:33)

In the same way,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NIV Lk 14:33)

2001 하반기 대심방 시작 되다

지난 주부터 2001 하반기 대심방이 시작되어 각 교구담당 교역자들은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 기도 제목들을 들고 심방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의 심방은 교역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을 축복하고 각 가정마다 놓여있는 기도제목들을 듣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다. 각 교구장과 다락방장, 성도들은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특별히 교역자의 깊은 기도가 필요한 성도는 전화로 연락하기 바란다.

巡禮者時論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주5일 근무제의 문제점



이중운 목사

■ 이 글은 지난 10일 (월요일) 종로 5가 여전도회 회관에서 한기총이 주최한 주5일 근무제 찬반토론회에서 발제한 이중운 목사의 강연내용이다 ■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왜, 우리는 주5일 근무제도를 반대하는가?

첫째, 성경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쉬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도 적당한 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육신의 회복과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임은 자다가 공인하는 바다. 그래서 성경은 일주일 중 하루를 쉬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 날은 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주무시거나 오락을 즐기며 인생의 행하는 일에 무관심 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야담과 하와가 범죄 했을 때 즉시 찾은 것으로 보아 오히려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평안 없음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없나이다.' 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평안을 찾으려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인간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처럼 변화 때문에 인간에게 불안이 왔다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은 불안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한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불안과 공포를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설 때까지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쉬려면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요 죄를 미워하는 분으로 죄와 상관없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죄와 대립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안식을 얻는 길이다. 쉬는 것도 안식이겠으나 적극적으로 거룩함이 없는 참 안식은 없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셨다.

안식일에 극장엘 갔느냐 야외놀이를 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을 떠난 것에는 참 평안(쉼)이 없

고 거룩이 없는 것에는 진정한 안식(쉼)도 없는 것이다.

인간의 안식제도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유추되므로 안식일에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일하지 말라 하신 것(출20:8-11)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신 것은 피곤하니 쉬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일하지 말라'한 것의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안식하는 목적은 피로운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창2:3에 '일곱째 날을 복 주사'라고 했다. 다른 옛세 동안은 복 주셨다는 말이 없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기로 구별하셨다. 그리고 출16:22-23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했다. 제6일엔 각 사람이 갑절로 준비했다. 안식일을 사사로운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도 옛세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옛세동안 힘써 일할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셨다.

어떤 천문학자들은 7일 제도를 일곱별을 택해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제도라 하나 창조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7일 제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 18세기 불란서 혁명 때에 7일제 대신 10일제를 채택했으나 실패했고, 2차 대전 중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주일 개념을 말살시키려 한 적이 있으나 이 또한 실패로 끝났다. 현대사회에서 신·불신간에 7일제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창조원리이기 때문이다.

7일제에 있는 안식제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찾아진다.(신5:15 출16:22-23)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므로 영원한 구원과 자유와 천국을 얻게된다는 약속이 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옛세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이제 되는 날을 안식일로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맡겨진 사명 수행을 위해 책임을 다 하라는 명령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두 가지 명령이다. 이와 같은 안식 개념이 신약성경에서는 주일로 바뀐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다. 교회가 주일에 시작이 되었으니 주일에 죄 용서함이 있고 구원과 회복과 중생이 있는 날이다. 이 날을 예배드리는 날,

전도와 구제하는 날로 삼고 일체의 오락을 금해온 것이 기독교 신앙 전통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미래사건 즉 천국의 예표 요 약속이기도 하다. 창조사건이나 출애굽사건 그리고 예수 부활 사건도 모두 과거 사건이지만 안식의 완성은 그리스도재림 즉 미래 사건이다.

벚꽃 날(해·달·별)을 위해 첫째 날(빛)이 있었고 다섯째 날(새·물고기)을 위해 둘째 날(궁창)이 있었고 여섯째 날(짐승·사람)을 위해 셋째 날(물·땅·채소·나무)이 있었듯이 일곱째 날(천국안식)을 위해 다른 여섯 날들이 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미리 맛보는 날이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지식과 말씀 지식이 성장되고 따라서 언약백성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이와 같은 안식제도는 토요일 휴무제나 공휴일 제도와는 그 뜻이 다른 것이다. 단순히 지친 육신의 피로회복 기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날이다.

칼빈은 그의 십계명 주석4권에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름과 나태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그들의 손과 발의 수고의 단순한 중지 그 자체에는 아무 의가 없다'고 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유치한 미신이다'라고 까지 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안식은 일을 계속하면서 얻을 수 없다. 일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하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옛새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새'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동을 저주의 대가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인간 타락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는 문화명령을 주셨다.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노동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할 일감을 주셨다. 그러므로 노동은 축복이 저주가 아니다. 노동을 통해 흘리는 땀과 수고는 저주가 아니다.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3:19)' 한 말씀은 죄를 범한 인간이므로 욕심이 있어 이런 수고의 땀, 안 해도 될 고통을 느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사명 수행을 위해 옛세동안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한 죄는 벌하셨으나 6일을 일하지 않은 것은 책망한 적이 없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옛

새동안 힘써 일하라는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근면과 책임 있게 일하라는 것이다. 놀고먹으려는 게으른 죄는 악한 죄로 성경은 도처에서 지적하고 있다. (마 25:26, 롬 12:11, 계 2:3 딤후 5:13, 출. 잠. 역대하 등) 게으르지 말고 철저히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이다. 인본주의 자들은 사람 편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이 주어졌다면서 막 2:27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복주시는 날이라는 뜻이다.

어떤 이는 주5일 근무제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도 주장한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생산적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5일제 근무를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살후 3:10) 하였다. 근면과 절제를 노동윤리로 삼은 개혁신교회는 오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 5:17)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일하기 위해 쉬는 날은 있으나 쉬기 위해 일하는 노동 관은 배격한다.

쉬기 위해 노동을 한다는 사람에겐 '일이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될 터이니' 이런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결국은 일생을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격이 될 것이다. 본래 일은 피로운 것이다. 한문에도 피로울 勞(노)에 움직일 動(동)자를 쓰고 노동이라 했다. 히브리어로 '아브다'는 노예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의 '토너스'는 아주 피로운 것과 관계된 말이다. 독일어의 '아르바이트'라는 말과 '가난하다'는 말의 어원이 같다. 이렇게 볼 때 언어학적으로 보아서도 일은 피로운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일이 이토록 피로해 된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노동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실 세계 모든 철학과 종교에서 노동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성경뿐이다. 성경은 이원론을 배격하므로 노동을 천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또 쉬는 것도 노동한 다음에 쉬는 것이 지 요즘 농담으로 돌아가는 말처럼 먹고 놀고 쉬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다. 일 자체는 본래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놀고먹는 사람이 생판자라고 한 우리의 옛 가치관은 비 성경 적인 것이다. 노동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육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날 수 밖에 없다. 정신노동도 쉬게 되면 치매현상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은 일단 좋은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온갖 범죄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힘써 일을 했으나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일은 하되 노동의 가치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노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와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옛새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는 명령에 이레 되는 날은 쉬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므로 우리는 이를 배격한다.

둘째,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향락산업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소비성향을 크게 자극할 것이다. 삼성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5일제 근무로 뜨고 지는 업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짐작하고 남을 결론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부상할 분야로는 관광업, 여행업, 백화점, 신용카드업, 외식업, 레저 관련 상품업, 전원주택 개발 등 모두가 소비성향의 업종이다. 반면에 약화되는 분야로는 제조업, 수출 위주 산업, 건설, 1차 산업 등 모두가 생산성 업종이다.

이처럼 사치성, 향락 성이 크게 부각될 뿐만 아니라 여가 선용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 줄 것이다. 방학 동안에 과의 수업 보낼 형편이 못되는 가정의 아픔을 누가 알아줄까? 토요일 휴일 제는 그렇지 않아도 비틀거리는 공교육제도를 뿌리 채 흔들리게 할 것이다. 일용직·비정규 근로자 수가 전체 노동 인구의 50퍼센트를 상회하는 터에 정규 근무자에게 해당 될 주5일 근무제는 이들의 소득감소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휴가일수 계산에 차이는 있으나 대한 상공 회의소 발표에 의하면 현행 휴가제도를 유지한 채 주5일 근무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165일에서 175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많게는 휴일이 연중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놀고먹자는 생각이 팽배해 질 것이고 사회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 땀 흘려 일하려 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이 전환될 때 사회질서는 걸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 경쟁력이 감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국가 경쟁력 상수에 무관심 할 수가 없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레저 관련 수요가 10% 가량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0.57% 상승하고 약 65만 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삼성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인건비가 14.5% 상승될 것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속도가 빠르게 될 것이며 짧은 근무시간 때문에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수출가격은 3.2% 가량 상승될 것이므로 국가 경쟁력은 그만큼 저하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5단체장들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고용이 늘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임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오히려 고용감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현행 주5일 근무제도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기대 할 수 없다 하여 학교장 재량권에 맡겨 6일 수업제를 독려하는 등 선진국가들이 이미 주5일제 제도의 약점 보완에 힘을 쓰고 있는 터에 아무런 자원도 없는 우리 나라가 잘못된 선진 국가제도를 뒤늦게 쫓아가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며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넷째, 교회의 전도 문이 더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종교, 물량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골리앗 같은 장애물들이 오늘의 복음전도를 저해하고 있는 터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게 될 경우 주말 연휴가 2일씩이나 됨으로 신앙생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서구의 교회들이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도 주5일 근무제와 무관치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CBS(기독교 방송)와 C3TV(기독교 인터넷 방송)가 기독교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앙생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C3TV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할 경우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질문에 33.8%가 긍정적이고 66.2%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이미 시류에 따라 주말교회가 등장했고 토요일에 주일 I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긴 것만 보아도 성경적 교회관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고 초신자나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끌어들이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터에 복음전도 전략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CBS는 주5일 근무제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랬다가 61.6% 아니다 35.1% 모르겠다가 3.3%의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을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가 있으나 이는 현실 감각을 상실한 주장이고 매주 새가족이 없는 교회로 학교처럼 몇 년 이상 다니는 성도 만이라면 교육을 통해 성수 주일을 100% 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중에는 연약한 성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혹자는 현금감소를 우려하는 교회들이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한다는 억측을 하는 이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심지어 국민 대다수가 근로자인데 교회만 나서서 반대하면 그들에게 인심을 잃으려고 자처하는가 라고 인심론을 주장한 목회자도 있다. 그리고 경제 특실이나 이해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의 결정에 맡겨 두어야 한다면서 교회의 대 사회적 기능을 최소화하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경제 특실과 이해 관계인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할 때 교회가 바른길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바른 사명이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면서 묵과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신앙적으로나 애국심의 측면에서 둘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한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에 제고를 촉구해야 한다.

- 1교구: 건어물, 화장품, 바지, 아이스크림, 파해물전
- 2교구: 식혜, 새우젓, 옷, 휴지(유한킴벌리)
- 3교구-4교구: 꼬치, 녹두전, 동그랑땡 (삼푸, 린스, 스프레이, 젤, 김포쌀, 고추, 참기름, 참깨)
- 5교구: 도자기, 그림 (장뇌삼, 송이버섯, 석창포, 기능성 삼푸, 의류)
- 6교구: 건어물, 추석선물SET, 올리브유, 카시오시계

**2001 사랑의 바자
교구별 판매품목**

(G-SHOCK, BABY-G)
7교구: 안홍전빵, 식혜, 커피, 중의류, 신발, 안경 (돋보기, 복사용지)

- 8교구: 수수전병, 육가공품(냉동,냉장), 닭가공품(마니커)
- 9교구: 옷, 유과, 배, 오징어젓갈
- 10교구: 돈까스, 북어양념구이, 멸치, 포도, 사과
- 11교구: 병칭잡쌀순대, 떡볶이, 커피, 포도즙
- 12교구: 해물전, 카나리약떡, 푸르네 잡곡

편지왔어요

단기선교팀이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 중 평안하시겠지요? 이제는 분주했던 지난 여름의 그 걱정을 가라앉히고 모두들 제자리를 찾아가셨겠지요? 한 영혼이 귀한 이 선교지에서 그토록 많은 감동으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들을 찾아 여기 까지 왔는지를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저 좋았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살고싶다는 베드로의 변화산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인줄 알았는데 막상 헤어지려니 눈물 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며 산골짜기 이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10년 전 교회 없는 동네를 찾아 물어가면서 저 산 넘어 가면 어떤 종족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산골짜기 산등성이로 고물 픽업을 빌려서 삼을 싣고 다니며 길을 만들고 이어가면서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 본 산 넘어 그 산자락에는 아직 세상에 개봉되지 않은 보물 같은 신비한 소수민족인 산족들이 군락을 이루며 나름대로 전통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은 감격과 황홀 그 자체였고 주님이 보내셨기에 특권을 누림을 감사 드렸지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여럿이 함께 그 길을 가며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이 영혼들을 기쁨으로 삼고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크고 거대한 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찾아다닐 때도 주님의 관심은 늘 이 작은 자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서울교회 선교팀이 이 초라한 곳을 찾아 진정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 사랑을 접한 이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함을 늘 강조하였는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려는지 이번에 다녀가신 후로 목회자 훈련에 15명이 참석하였고 후아이라이 마을의 숙소를 제공했던 가정의 큰 아들 '짜포'라는 청년이 신학을 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저를 찾아왔기에 다음 학기부터 공부하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멜라노이에서도 금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폰'이라는 자매는 신학교를 가게 해 달라고 짐을 싸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 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을 마친 후 장차 한국에서 가서 신학을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선교팀을 도와주었던 '따'와 '능' 전도인도 선교팀의 활동에 큰 감동을 받고 한국말을 배워 직접 통역을 하여 이들에게 생생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과 정을 듬뿍 받았던 현지인들도 언제 다시 오느냐고, 크리스마스 때는 오시느냐고 물으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할 수도 없는 이들에게 큰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저질러 놓고 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교회와 선교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뵈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 중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1. 9. 10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랑에 빛진 종이 양동 선교사 드림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국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을 위하여
2. 이웃돕기 바자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2001 사랑의 바자를 기다리며

바자를 준비하며

진경옥 집사(7교구)

새 예배당 입당감사 찬양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사랑의 실천 운동을 보이기 위해 2001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한다. 우리 7교구도 발동이 걸렸다. 해마다 열리는 바자회지만 올해는 특별히 새 예배당에서 열리는 장터가 되기에 더욱 감격스럽기도 하다.

멀리 일산, 김포지역까지 속해있는 7교구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열정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특히, 중구 권사님들의 눈물겨운 헌신은 더욱 값지리라 믿는다. 밤새워 일하시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여하시는 권사님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떻게 하면 많은 헌신을 하여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실까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교구장 지도 아래 머리를 맞대고 목표달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우리 7교구엔 여러 품목 중에 '효자신발'이 있는데 이 신발이 판매되는 곳마다 복음의 신이 되어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는데 앞장서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해본다.

전국 곡간에는 이웃돕기 계좌도 있을 것이다.

김영택 집사(교구)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61년 12월 25일 아침. 온 세상이 온통 들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서울 유학 온 손님 중학 통장들이 중국 음식 시켜먹고 오락으로 밤을 지새우고 돌아오는 눈 내린 왕십리 골목길에서 별것계 허를 빼물고 얼어죽은 듯한 길인의 형체를 섬뜩하여 그냥 지나쳤는데 기괴한 부르짖음 같은 소리가 뒤통수를 끌어 되돌아 가보니 생명은 붙어있는 듯 한테 방도가 없었다. 자취방에 들어놓을 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잊자 생각하여 돌아서 버렸는데 잊혀지지 않고 죽어 가는 생명을 방치한 죄파의 그림자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천사였을지도 모른다는 동화적인 두려움도 오래 이어졌다.

후일 주님을 뵈올 때 이일을 문책하시면 어쩌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남의 아픔을 모른 척 지나쳐버린 죄악의 기억이 얼마나 많은가? 간접보상이라는 참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또 하나의 용서의 은총인 것 같다.

요즘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내게 있었던 아픔 내게 다가올 아픔을 생각하게 된다. 혼자 사는 노인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어린 가장의 작은 손에 따뜻한 떡을 쥐어주고 병마로 절망하는 이웃에게 치료비를 보태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퍼자. 전국 곡간에는 교회헌금의 항목도 있고 이웃돕기 계좌도 있을 것이다. 힘써 일하고 근검 절약하여 모은 저축은 마땅한 축복이겠으나 줄 것 안주고 쌓은 부는 오히려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 하늘양식 쌓는 지혜의 눈을 열자. 값진 물건이지만 당장은 내게서 쉬고있는 것들을 쓸 주인을 찾아주고 내게서 다섯의 효과가 받는 형제에게서 열의 효율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찾아보자. 더불어 사는 세상은 그것 자체로도 천국의 기쁨의 그림자일 것이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대한 감리회 교육훈련원이 주최하는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에서 20일(목) 특강을 한다. 20일(금) ALCOE V (아시아로잔 위원회 주최 제5차 아시아 지도자대회) 준비 위원회를 소집한다.
- 단기선교팀은 매월 1회 정기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지난 9월 14일(금)에 1차 기도회를 가졌다.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김관철 집사
- 어머니 함송현 권사 82회 생신감사
-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가정: 하영수 장로 가정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영동대교

